

광주일보 ‘탄핵 가결’ 호외 발행 ... 뜨거운 역사의 현장 함께 합니다



‘이재명 현상’ 관심 속 잠룡들 호남 민심 주목

사실상 조기 대선 ... 바빠진 대선 주자들

제3지대 약화 ... 여권선 황교안·유승민 가능성 거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야권은 자연스럽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대선 시기는 알수 없지만 이르면 내년 봄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각에서는 경선 물이나 일정 등 조율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조기 대선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현상 계속되나=야권의 대선 구도에서 조마의 관심사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현상’이 계속될지 여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8일 전국의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18%를 기록, 공동 1위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20%)와 사실상의 3강 체제를 구축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갤럽조사(1026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5%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무려 13%포인트가 급상승한 셈이다.

그 사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같은 기간 9%에서 8%로 소폭 하락하는 등 다른 주자들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탄핵안 가결 후에도 이 시장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반쪽효과’에 머무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이 시장의 존재가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기의 제3지대=이재명 성남시장의 급부상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지지율 정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하락세로 제3지대론의 동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재명-문재인의 민주당 경선 대결구도가 국민적 흥행을 부르면서 제3지대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한다면 제3지대의 국민적 관심은 더욱 저조해 질 수 있다.

일단 반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한국 국민들이 단합된 힘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와 원칙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며 대선 도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1월 귀국·2월 신당 창당·6월 대선 도전의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 전 대표가 당을 떠나 친박-진문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광주일보 호외를 읽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3지대 경선의 길을 튼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안철수-손학규 등이 경쟁한다면 충분히 정권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승민 의원의 대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호남 민심 주목=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호남 민심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야권 잠룡들에게 호남 민심은 승부처다. 호남 민심의 저변에 비문(비 문재인) 정서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잠룡들은 한 판 역전 승부를 버리고 있다.

당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은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호남 민심의 맞춤형 메시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자들이 국민의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는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들도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대선 도전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는 호남-충청 연대론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박근혜표 정책’ 수술대 오를 듯

추미에 “국정교과서·위안부 협의 중단 요청할 것”

야권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을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파면’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박근혜표’ 정책도 자연스럽게 수정 또는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에 야당은 국정교과서 정책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에 대표는 지난 9일 “국정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 등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 및 국회 협의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의 제도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폐기에 야당은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활동 기간이 종료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보장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 민정수석 조대환 “미르·K재단 모금 뇌물죄” 인정 주목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만달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금대섭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민정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이날 조 수석이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틀날 올린 해당 글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이날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면서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7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국제무역전공 석·박사과정 모집

조선대학교 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FTA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호남권(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지원자 우대 및 합격자 특징

- 광주·전남 산업체 근무자 및 관련 공공기관 재직자 우대
- 합격자 전원 재학기간(4학기) 동안 협약기관특별장학금(수업료의 1/2)과 각종 학술장려금 지원
- 전일제 연구생은 수업료의 2/3 지원
- FTA 및 무역전문가 팀티칭 수업 실시,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 현장실습 기회 부여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국내·외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턴십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15명(4학기) / 박사과정 5명(4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토요일**에 실시함
- FTA비즈니스모델, 무역경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이메일 사전접수	2016. 12. 1(목) 10:00 ~ 12. 23(금) 17:00	· fta_business@daum.net 으로 지원자 연락처(성명, 소속, 연락처) 송부
인터넷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016. 12. 27(화) 10:00 ~ 2017. 1. 9(월)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진학사어플라이 http://www.jinhak.com/ (콜센터 1544-7715)
입학지원서(출력본) 및 서류제출	2016. 12. 27(화) 10:00 ~ 2017. 1. 10(화)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 (우)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월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 구술시험(면접),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

모집요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비즈니스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FTA비즈니스학과 062)230-7283 대학원 062)230-6401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